

“경제·수익성 있는 군정으로 함평 새 도약 이끌겠다”

취임 100일 맞은 이상익 함평군수 '6대 분야 65개 공약' 속도

지난 4·15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상익 함평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1년여 군정 공백과 코로나19로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서 취임했지만, '군수관사 폐지', '열린군수실 운영' 등 약속한 공약을 차례로 실현시키며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에는 조직개편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각종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분산

됐던 축제업무를 축제엑스포사업소(가칭)로 통합하는 등 민선 7기 후반기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조직체계도 구축했다.

이 군수는 “지난 100일 동안 감염병 비상상황을 감안해 현장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현안과 군정 전반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확정된 6대 분야 65개 공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함평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정도 효율성 증시해야

이 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함평군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역점시책을 차례로 살펴보고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재검토했다.

이 군수는 “이제 군정도 철저하게 경제성을 따져 수립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도 과거의 단순한 제로섬(Zero-sum) 방식이 아닌 생산성과 경제성 수익 등이 바탕이 된 효율적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에는 민간인이 주축이 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경제, 농업, 관광 등 총 6대 분야 65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사업은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축산물클러스터 연관 공공기관 유치 ▲함평천지 돌레길 조성 ▲함평만 해안도로 조성 ▲4·4·8 함평체험 프로젝트 ▲스포츠타운 조성 ▲지역인재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함평천지복지재단(가칭) 설립 등이다.

이들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주력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특히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구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전남도와 중앙부처 등에 최대한 예산 지원을 꾸준히 요청할 방침이다.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

이 군수는 “답보 상태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전략으로는 산업 인프라 구축, 정주 기반 조성, 유망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3년 준공을 앞둔 빛그린산단에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한 195개 유망기업(첨단·부품·소재)을 유치한다.

지역 유치를 사활을 건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도시가스, 주거근린시설 등의 산단 배후단지 조성사업도 광주·전남·전남도와 적극 협의에 나선다.

이밖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실내체육관, 광역버스 노선 등 도심형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확충,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물류·도로망 확충 등 친기업적 산업환경도 관련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의 근간인 농·축산업은 친환경·유기농 생산에 중점을 둔 현재의 기초를 꾸준히 유지하겠다는

군수관사 폐지 등 변화 이끌어

산업인프라·기업 유치 등 최우선

나비축제 전문성 제고 국가공원 지정

성별·세대 아우르는 복지재단 설립

급여 1억9천만원 전액 기부



이상익 군수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소 운영과 방역 대책 등을 듣고 있다. (위) 열린군수실 운영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입장이다.

다만 유통구조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마켓, 전국 직거래장터 등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농산물가공센터를 함평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소 간 변화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축산업은 기존에 선정된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로 인해 조세와 건폐율 등 총 73종의 규제 특례 혜택을 받는 만큼 올해 말 마무리되는 명암축산농공단지와 최근 이전을 확정지은 축산자원개발부를 연계해 국가 단위 축산정책 사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축산업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축산물클러스터 육성 조례 제정’에 착수해 대규모 육가공 기업, 축산 창업 교육기관, 관련 연구기관을 지역에 유치하고 정부에도 국토종합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체류형 관광은 선택 아닌 필수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함평을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놔다.

관광산업 자체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데다,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 비해 관광자원이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군수는 먼저 공약으로 내세웠던 ‘4·4·8 함평체험 프로젝트’부터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산·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동부 숲세권, 서부 해안권 등 권역별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륙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자연생태공원 인근에 대중제 오토캠핑장과 자연생태숲길을 조성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용천사권역은 3단계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주차장, 상가, 숙박촌 등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힐링센터를 건립한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나비축제 등 지역축제는 함평 축제관광재단을 새롭게 설립해 축제 준비를 전문화하고 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은 인근 습지공원과 화양근린공원을 한데 묶어 중장기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풍광(風光)이 아름다운 서부 해안권은 총사업비 325억 원을 투입해 10.82km에 달하는 함평만 해안도로를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한다.

해안가 인근에는 돌머리 노을정원, 해당화관 치유정원, 안악 수국거리 등을 조성해 함평만의 이색적인 경관으로 채운다.

지역 대표 휴양지인 돌머리연안도 올해 준공한



취임 100일 맞은 이상익 함평군수가 6대 분야 65개 공약사업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수욕장 치유센터와 갯벌생태체험, 오토캠핑장(카라반), 주포한옥마을 등을 연계해 전남 서남권 힐링 체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호텔·콘도·루지코스 등을 조성하는 9000억 원 규모의 사포관광지 개발 사업도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현재 전남도, 민간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검토 중인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역시 각종 전지훈련과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정 궁극적 가치는 군민 행복

이 군수는 군민 삶의 질과 밀접한 복지·교육 분야에 대해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긴 호흡을 갖고 일관성 있게 관련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함평천지복지재단(가칭)을 설립해 노인·여성·어린이 등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보훈수당 인상,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지역 인재양성의 마중물인 인재양성기금은 2030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확대 조성하고, 대학 등록금도 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받을 1억9000여만 원의 군수 급여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기부 방식이나 기부 대상, 용도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함평천지복지재단이나 인재양성기금 등에 기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게 출발한 만큼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만 치열한 지자체 간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2년이 향후 함평 발전을 좌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 현안 사업과 중장기 사업들을 잘 조율해가며 새로운 함평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하 기자 hwang@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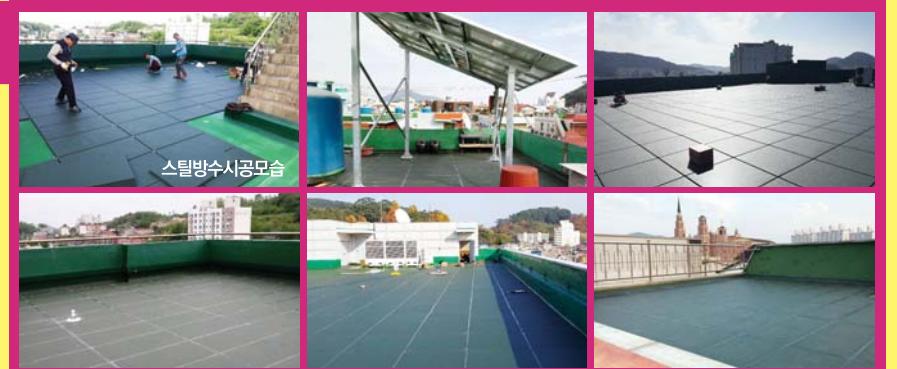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